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

쌀 등 108개 품목 양허제외…개성공단 특례 인정

한국이 아세안 9개국과 맺은 상품무역협정의 발효는 국내총생산(GDP) 0.63% 증가 효과를 줄 전망이다. 특히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한 · 미 FTA와 달리 쌀 · 쇠고기 · 돼지고기 · 고추 등 초민감 품목은 아예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원산지 특례 인정을 받아냈다.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재발동 제한을 두지 않아 시장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최대한 국내 산업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쌀 · 쇠고기 · 바나나 개방 제외

양측은 각각 전체 1만3048개 품목에서 7%의 일반 민감품목은 관세 부분 감축, 3%의 초민감품목은 개방(양허)제외 등을 적용했다. 협정 발효와 함께 우선 7991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생커피, 타이어, TV, 딸기주스, 채소주스, 마요네즈, 소주, 당근, 송어, 연어, 모래, 세탁기, 진공청소기, 손목시계 등이다.

2008년에 철폐되는 품목은 오리, 참치, 미역, 필터담배, 원유, 라디오, 면도기, 승합차, 승용차, 화물차, 인형 등 3568개이다. 낙지, 어육, 감자, 레몬주스, 포도주, 로얄제리, 스웨터, 남성바지, 유아용 의류 등 504개 품목은 2010년에 관세율이 0%가 된다. 2012년까지 관세를 20% 감축하는 일반 민감품목은 가자미, 대구, 바지락, 여자코트, 스카프 등 571개이다.

초민감품목 중 새우, 치즈, 오렌지, 사과, 배 등 6개 품목은 2016년까지 현재의 관세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오징어, 망고, 두리안, 마른김, 마늘, 양파, 합판 등 250개 품목은 2016년까지 관세의 20%를 깎기로 했다. 쌀, 쇠고기, 삼겹살, 닭고기, 복어, 민어, 조기, 고추류, 바나나, 파인애플 등 108개 품목은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성공단 인정…세이프가드 제한없이 발동

양측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보고,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 특혜를 주기로 했다. 원산지 특례가 인정되는 품목은 의류, 신발, 시계, 전자부품 등 100여개이다. 또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을 3년(1년 연장 가능)으로 했다. 세이프가드는 관세가 철폐된 뒤 7년까지만 발동이 가능하고, 재발동 제한 기간도 없다. 이와 달리 한 · 미 FTA의 경우 일반 세이프가드의 발동기간은 2년(1년 연장 가능)이고, 동일상품에 재발동을 할 수 없도록 합의됐다.

기대되는 경제 효과

아세안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한국의 5대 교역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 · 아세안 FTA 발효로 한국은 실질 GDP 0.63%, 소비자 후생수준 24억6400만달러, 대(對) 세계무역수지 8400만달러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섬유 · 직물, 자동차 · 부품, 기계류, 기타 수송기기, 철강 · 금속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 2007. 5. 30 / 국민일보 –